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역발전

- (한국)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: 충청남도 사례
- (일본)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를 향한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
- (미국) 조지아 주 Gwinnett 카운티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

지방재정

- (일본) 일본 지자체의 산림환경세 도입현황과 과제

조지아 주 Gwinnett 카운티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(Community Outreach Program)

도입 배경 및 과정

- Gwinnett 카운티는 미국 남동부지역 및 조지아 주 내에서 인종 구성이 가장 다양한 지역임
- 1970년대 이후 Gwinnett 카운티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해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, 이는 지역의 인구구성 다양성으로 이어짐
- 지역의 인구구성 다양성이 증대되면서,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 (needs)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
- Gwinnett 카운티 정부는 지역사회 기여함에 있어 다양한 집단 모두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며, 지역의 리더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키고자 하였음
- Gwinnett 카운티 행정위원회 (Board of Commissioners)는 2015년 이러한 카운티의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책임관 (community outreach program director) 직책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였음
- 프로그램 관리자 직책의 도입은 대표성이 부족한 집단 (under-represented)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

주요 프로그램 및 특징

- 일반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 (Outreach Program)은 ‘관외 활동’ 프로그램을 지칭하며, 이는 기존 시스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
-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지식 (Knowledge), 참여 (Involvement), 관계 (Engagement)의 세 가지 목표로 분류될 수 있음
 - 지식 (Knowledge): 지방 정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이슈들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함

- 참여 (Involvement): 시민, 특히 대표성이 부족한 집단의 참여를 양적,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
- 관계 (Engagement): 지역 주민, 지역 사업체, 학생, 지방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
-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(Community Outreach Program)은 기존에 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며,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
- 통합계획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음
 - The Gwinnett 101 Citizens Academy: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과의 현장 실습 및 참관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지식, 참여,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



| 그림 1 | 2019년 Citizens Academy 세션 교육 장면

- **The Gwinnett Youth Commission:** 시민의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임



| 그림 2 | Gwinnett 카운티의 Youth Commission 프로그램

- **Outreach to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s(DBEs):**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집단 혹은 개인이 지분의 51%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프로그램
- **Dinner and Dialogue Sessions:** 이 세션에서는 개별 행정위원(commissioners)들이 소규모의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들을 논의함으로써,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상호간의 관계 및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**Collaborative Partnerships:** 종교 기반 및 USCIS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)을 포함한 기타 외부 조직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,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권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귀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

현황 및 시사점

- 2019년까지 12만명 이상의 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, 그 중 대다수가 민족/인종적 소수집단 구성원이었음
-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, 프로그램의 여러 활동에 대하여 2019년 기준 14,000시간 이상의 활동 시간을 기록하였음
- 현재,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
-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여러 민/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민간-공공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

- Gwinnett 카운티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민구성원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러한 경험을 주변 카운티들과 공유하고 있음
- 한국사회의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인종적 다양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다양성은 비단 인종/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, 사회구성원의 특성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
-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역사회에 포함시키고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

자료 출처

- Gwinnett County 홈페이지: Community Outreach Program
(<https://www.gwinnettcounty.com/web/gwinnett/departments/boardofcommissioners/communityoutreachprogram>)
- International City Managers' Association (ICMA) 홈페이지
(<https://icma.org/>)
- 2020 GWINNETT MARKET REPORT “Gwinnett board of commissioners readies for changing of the guard”
(<https://www.bizjournals.com/atlanta/news/2020/12/04/gwinnett-market-report-hendrickson.html>)
- Sonam Vashi (2020), “How Immigrant Communities Beat Back Ice and Helped Flip Georgia”. The Appeal, Dec 10, 2020
(<https://theappeal.org/politicalreport/georgia-activism-immigration/>)



김진탁 통신원

(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 박사과정)
kjtstar6@gmail.com